

인생의 아픔과 기도

Kingdom Life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1~20

묵상할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10-11절).

찬송: 543장(통 342,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 정해진 담당 순서에 따라



마음 열기

당신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말씀 듣기

다 함께 본문을 읽은 후, 한 사람이 본문을 천천히 다시 읽고 나머지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집중하면서 경청합니다.

—배경설명

책 이름은 사무엘이다. 그러나 내용은 열왕기하까지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사의 시작이다. 열왕기하까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될 책인데, 그 시작은 한 여인의 설움과 아픔에 응답하여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왕 중의 왕이며 인간 왕 위에 계셔서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라는 하나님의 주권의 선언으로 시작한 것과 똑같다. 왕국사는 우리를 대표하는 아픔 많은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 시작한다. 그래서 왕국사의 첫 책인 사무엘상은 인간 삶의 현실 이야기가 된다. 인생은 아프다. 인생은 고난과 아픔의 실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다. 성경의 거대한 왕조실록은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대표하는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고통에서부터 시작한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픔 속에 있는 인간에게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또한 그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준다.

—도움말

- 에브라임 사람(1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엘가나는 레위인으로 에브라임에 살았다(대상 6:27-28). 그래서 사무엘은 레위 지파 출신이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다.
- 두 아내(2절):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나, 일부다처제는 율법의 규정이 아니었다.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율법이 무시된 관행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삿 21:25).
- 실로(9절): 당시 회막과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성지였다.
- 심정(15절, 히: 네페쉬): ‘네페쉬’는 마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심정을 통한’이라는 말은 ‘마음을 쏟아내다’라는 의미이다. 생각하신지라(19절, 히: 와이즈케레하): 직역하면 ‘기억하신지라’이다.
- 생각하신지라(19절, 히: 와이즈케레하): 직역하면 ‘기억하신지라’이다.
- 사무엘(20절): 사무엘이라는 이름에는 ‘여호와께 구하였다,’ 혹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있다.



말씀 깨닫기

1.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던 아내 한나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1-8절)

- 성경은 한나가 지니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의 원인을 두 번에 걸쳐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5-6절 참조)

- 한나와 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다면, 그 때의 경험(생각, 감정, 반응 등)을 간략하게 나누어 봅시다.

2.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던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9-11, 15절)

-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한나가 드린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합당한 기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 당신은 어려움을 만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3. 하나님은 하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19-20절)

-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진리들은 무엇입니까?

-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살기

1.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면 간략하게 나누어 보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2.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나 오래 동안 기도해 오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누어 보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